

미스터어플릿, KRA컵클래식 V ‘화려한 데뷔’

문학치프 등 스타경주마 제치고 선착
어머머마, SBS 대회 반마신차 승리
트리플크라운 1차전 히트예감 우승
트리플티아라에선 라온핑크가 압승



10월부터 대상경주가 열리면서 시리즈별 우승 유력마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4일 KRA클래식에서 우승한 부경의 미스터어플릿과 서승은 기수.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10월부터 대상경주가 열리면서 경마 팬들의 눈길을 끄는 경주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올해 시행되는 주버나일, 트리플크라운, 트리플티아라, 챔피언십의 첫 경주가 마무리되면서 시리즈별로 우승 유력마들이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주버나일시리즈, 컴플리트벨류 첫승

주버나일시리즈의 첫 경주는 서울에서는 컴플리트벨류, 부경에서는 영광의 레전드가 2위와 각각 3마신, 5마신 차이라는 여유있는 우승을 거두었다. 컴플리트벨류는 4전 4승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영광의레전드는 한때 9위까지 떨어졌던 부진을 만회했다.

영광의레전드는 주버나일시리즈 부경 2차전인 김해시정배에 나서 부경 최강 2세마의 명예를 다진다. 반면 컴플리트벨류는 서울 2차전인 농협중앙회장배에 나서지 않는다. 농협중앙회장배에는 문화일보배 2위와 3위였던 원평가속과 벤칼프린세스를 비롯해 승부사, 아스펜데양 등이 출전한다. 서울과 부경의 대표 2세마들은 12월 5일, 부경 경마공원 브리더스컵에서 격돌한다.

트리플크라운 시리즈의 1차전 우승은 부경의 히트예감이 기록했다. 서울 흥라리의 추적을 뿌리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선두를 내주지 않는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했다. 이준철 조교사의 흥바라기는 아쉽게 2위에 머물렀지만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해 따라가는 전개에도 막판 스피드로 앞으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평이다. 3위인 치프인디는 장거리에 강점이 있어 트리플크라운 시리즈 다음 대회인 ‘코리안더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트리플티아라 시리즈의 1차전, ‘루나

Stakes’에서는 서울의 라온핑크가 선행전개로 우승했다. 2위 제다이를 8마신 차로 앞선 압도적인 승리다. 출발반응도 좋고 게이트도 좋았다. 경주마로서 타고난 능력이 좋고, 점차 실력이 무르익고 있어 앞으로 펼쳐질 코리안오크스를 비롯해 트리플티아라 전승을 노리고 있다.

●세대교체 돌풍, 통합 챔피언십

통합 챔피언십의 첫 라온데에는 장거리 최강자 청담도끼, 문학치프와 단거리 최강자 블루치퍼 등 한국 경마를 대표하는 스타경주마들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관록의 경주마들과 신예 경주마들의 맞대결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결과는 신예마들의 승리였다.

‘KRA컵클래식’에서 성공적인 대상경주 데뷔를 한 미스터어플릿은 선두 문학치프를 따라가며 경주를 전개하다 직선주요에서 치고 나오며 우승을 차지했다. 그 뒤를 서울의 행복왕자가 바짝 쫓으며 코치의 대접전을 펼쳤다. 이 경주에서 경주 초반 선형을 이끌던 문학치프와 3코너까지 외곽에서 바짝 추격하던 청담도끼는 4코너를 돌며 페이스가 떨어져 각각 7위와 15위에 그쳤다.

‘SBS스포츠스프린트’는 지난해 단거리 대상경주에서 3파전을 펼친 이스트제트, 어머머마, 모르피스와 부경 블루치퍼가 격돌했다. 가장 외곽게이트에서 출발한 어머머마는 4코너까지 외곽을 선회하며 끈기 있게 선두를 쫓다가 결승선 200m전 지점부터 추입에 나서 선두 이스트제트를 추월하고 반마신차의 승리를 가져갔다.

블루치퍼는 게이트의 이점을 살려 선행에 나섰으나 9위라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부경의 영웅루이스는 이번 경주 유일한 3세마로 출전해 3위에 입상하며 새로운 단거리 기대주의 탄생을 알렸다.

이처럼 1차전에서 두드러진 신예마들의 활약이 2차전과 마지막 ‘그랑프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경마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닉스고, 美 씨수말 데뷔 초읽기

마사히, 테일러메이드 목장과 위탁관리 계약
경매 인력 네트워크 통한 씨암말 확보도 유리



닉스고

한국마사회가 해외종축개발사업의 일환인 유전체 기반 기술 ‘케이닉스’를 통해 선발한 닉스고가 미국 현지 씨수말 데뷔를 앞두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미국 켄터키 주 테일러 메이드 종마목장과 닉스고의 씨수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 국내 첫 미국 현지 종마사업 진출의 성과를 올렸다. 한국마사회는 닉스고의 성장 잠재력을 토대로 지분 100% 소유와 위탁관리, 교배사업 협업 등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닉스고는 한국마사회가 2017년 미국 켄랜드 1세마 경매에서 8만7000 달러(약 1억 원)에 낙찰받은 경주마다. 한국마사회가 자체개발한 유전체 기반 개량·선발기술 케이닉스를 활용해 성장 가능성을 분석해 선발한 유망주다.

닉스고는 이듬해인 2018년 2세마의 최고 경주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브리더스 퓨처리티’ 우승과 ‘브리더스컵 주버나일’ 준우승의 성과를 냈다. 이후 부상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브리더스컵 더트 마일’, ‘페가수스 월드컵’ 9경주에 출전해 7번의 우승과 두 번의 경마장 신기록을 수립했다.

올해 10월까지 닉스고는 구매가의 80배가 넘는 550만 달러(약 66억 원)의 상금을 수득했으며 세계 경주마 랭킹 더트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경주마로서 커리어 하이로 기록 중이다. 2018년과 2020년 메릴랜드 연도 대표마에 선정되는 등 미국 경주마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로 보였다.

이번에 닉스고 위탁 계약을 체결한 테일러 메이드 종마목장은 세계적인 서브브레드 생산자인 켄터키에 위치한 목장으로 1976년 설립돼 유명 씨수말과 경주마들을 여러 배출했다. 또한 세계적인 경매 컨사이너로도 명망이 높다.

성공적인 씨수말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는 씨암말 확보 측면도 유리해야 하는데, 테일러메이드의 경우 경매 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씨암말 모집에서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닉스고의 경우 뛰어난 조속성과 탁월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 케이닉스를 활용해 과학적인 방식으로 적합한 씨암말을 선정해 교배를 진행한다면 후대 자마들의 성적 또한 우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범 기자

한국마사회 임직원 친환경 언택트 기부 진행

한국마사회는 환경보호와 사회공헌이 결합된 ‘친환경 언택트 기부’를 진행한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 봉사활동이 어려워 친환경 언택트 봉사활동 형태로 행사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온라인 희망나눔 자선걷기’이라는 슬로건으로 기획한 행사다. 공공기관 임직원과 시민이 10억 걸음을 달성하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월등 용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마사회는 임직원의 걸음 기부를 독려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언택트 걸음기부와 연계한 플로깅 이벤트도 병행한다. 쓰레기를 줍는 사진을 인증한 임직원 중 일부를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임직원 기부금 모금, 헌혈행사, 명절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유캔센터, 과몰입 치유 프로그램 운영

한국마사회 유캔센터(UcanCenter)는 경마 과몰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재활과 치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캔센터는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한국마사회가 국내 최초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중독예방 전문기관이다. 임상심리전문가, 중독심리전문가 등 공인된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재활치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강좌 등록을 원하는 고객은 31일까지 유캔센터(02-2199-9924)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경마공원에 ‘출전마 마주실’ 오픈

한국마사회는 24일 서울경마공원에 ‘출전마 마주실’을 오픈했다. 출전마 마주실은 경주마의 소유자인 마주가 경마장 결승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말이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경주에 출전하는 마주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자신의 경주마를 응원하고, 경주 후에는 경주마에서 안장을 내리는 하마대를 방문해 말과 기수를 격려할 수 있다. 오픈 행사에 참석한 문운영 한국마사회 경마운영본부장은 “출전마 마주실이 한국경마도 스포츠로 인식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골프·바둑

골프를 사랑한 그린 위의 ‘보통사람’ 노태우 전 대통령을 기리며

스코어 직접 적는 등 동네아저씨 닮아
핸디캡 18·드라이버 거리 180m 수준
‘100들이’ 김옥숙 여사 유머도 뛰어난



고 노태우 대통령은 골프 스코어를 본인이 적는 등 그린에서도 권위의식이 없었다. 1995년 하와이에서 함께 라운딩한 후 김옥숙 여사, 노 전 대통령(왼쪽에서 2,3번째), 당시 대한항공 지점장이었던 필자(맨 오른쪽)가 함께 포즈를 취했다. 사진제공 | 김병남

노태우 전 대통령과 영부인 김옥숙 여사와 함께 골프 라운드를 함께 한 것이 벌써 26년 전 일이다. 대통령 퇴임 2년 후인 1995년 8월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하와이대 동서문화센터 특별강사 초청으로 하와이를 방문했다. 강연을 마친 후 노 대통령은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면서 골프를 즐기는 중 당시 대한항공 지점장이었던 필자를 골프에 초대했다. 당시 필자는 JAL(일본항공)이 주최하는 하와이 아마추어 챔피언 대회에서 우승을 해 골퍼로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노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 필자 그리고 골프장 프로와 마우이 카팔루아 골프 클럽(Kapalua Golf Club)에서 18홀 라운드를 시작했다. 그린위에서 만난 전직 대통령은 권위의식은 찾아볼 수 없고 평범한 영국 신사로서 골퍼에 매진하는 모습이 대단히 진지했다. 핸디캡 18정도에 드라이버 거리는 180m정도이고 페어웨이에서는 아이언보다 우드를 즐겨 사용했다.

육군사관학교 및 오랜 군 생활로 원리 원칙이 몸에 배인 노 대통령은 골프 플레이도 골프 규정대로 라운드를 진행한다. 골퍼로서 어너도 스코어 순으로 치자고 하면서 극구 먼저 티샷 권유를 뿌리쳤다. 한번 볼이 깊은 병커에 빠져 페어웨이로 볼을 던지려고 하자, 만류하며 그대로 병커샷을 했다. 샷을 끝난 후 모래밭자국도 본인이 고무레로 정리한다. 퍼팅에서도 홀에 좀 떨어진 거리의 것을 속칭 오케 이를 주자 언짢은 표정을 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끝까지 홀아웃을 고집한다. 스코어도 본인이 직접 적는데 R1은 대통령

이고 R2는 김옥숙 여사 약자로 써 놓고 한 홀 한홀 스코어를 기재했다. 스코어 카드를 집으로 가져가 오늘의 샷을 반성하고, 평가를 한다고 한다. 상대방이 똑바로 장타를 치면 굿샷과 퍼팅이 굿러 들어가면 ‘나이스 인!’ 하면서 풀을 해주어 우리를 부드럽게 해줬다. 먼저 퍼팅이 끝나면 깃발을 잡아주고, 퍼팅라인의 볼도 옆으로 퍼터 길이만큼 옮겨준다. 그는 티잉에러의 부러진 티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전직 대통령이라는 무거운 선입관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한편 함께 라운딩한 김옥숙 여사는 스코어는 겨우 100타를 끊은 수준이나 라운드 중 늘 웃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었다. 호주머니 속에서 피로 회복제 등을 주어 동네 누나같은 기분이었다. 사진도 같이 찍자고 하면서 서울 오면 집에 꼭 오라고 전화번호도 알려주었다.

첫 홀에서는 긴장돼 분위기가 딱딱했지만 18홀 라운드가 끝날 무렵에는 아주 친숙한 친구들과 같이 서로가 자연스러웠다. 라운드가 끝난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애환과 고충을 한참 말하고 난후 홀라춤을 감상하는 모습을 보니 대통령의 무거운 직책을 벗은 그분의 심정을 읽을 수 있었다. 김병남 골프칼럼니스트

삼성화재배 바둑 결승전 ‘한국기사 대결’ 성사

신진서, 준결승 중 양당신에 불계승
자오천위 꺾은 박정환과 우승 경쟁
韓, 7년만에 삼성화재배 정상 탈환



신진서 9단

박정환 9단

오래도 걸렸다. 7년 만이다. 한국 1인자와 중국 2인자의 대결로 더욱 관심을 모은 2021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준결승전.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한국 랭킹1위 신진서가 중국 2위 양당신에게 277수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마지막까지 시소게임을 벌인 5시간 9분간의 치열한 혈투였다.

신진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결승에 올라 한국의 1인자라는 면모를 입증했다. 지난 대회 결승에서 마우스 오작동 발생으로 중국 케제에게 첫 판을 어이없게 내주며 준우승의 분위기를 삼켰던 신진서였기에 이번 결승 진출은 더욱 뜻깊다.

이날 승리로 신진서는 올해 국제대회 연속 기록을 15연승으로 늘리는 한편 결구려운 상대 양당신과의 상대전적도 5승 5패로 균형을 맞추게 됐다.

신진서의 결승진출로 한국은 7년 만에 삼성화재배 우승 삼패인을 티뜨릴 수 있게 됐다.

다. 전날인 27일 준결승전에서 박정환이 중국 자오천위를 236수만에 백 불계로 꺾고 결승에 선착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번 삼성화재배 결승은 한국선수끼리의 ‘형제대결’로 펼쳐지게 됐다. 한국은 2014년 김지석의 우승을 끝으로 무려 6년간이나 중국의 우승을 지켜봐왔다.

결승전은 11월 1일부터 3판 2승제로 진행된다. 세계대회에서는 두 번째, 국내대회까지 포함하면 9번째 ‘신박 결승대결’이다. 지금까지는 박정환이 초반 3연승, 이후 신진서가 5연승 중이다. 이번 대회 우승상금은 3억 원.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